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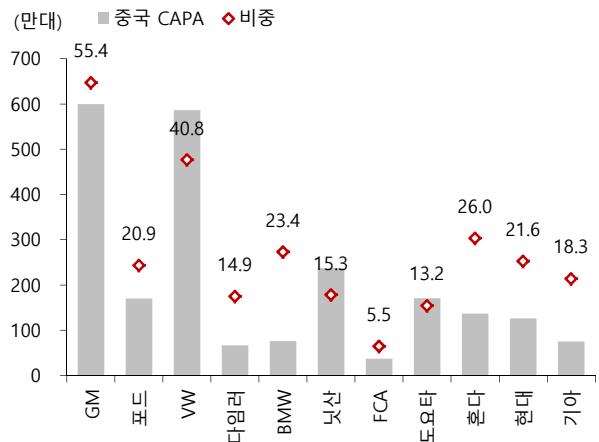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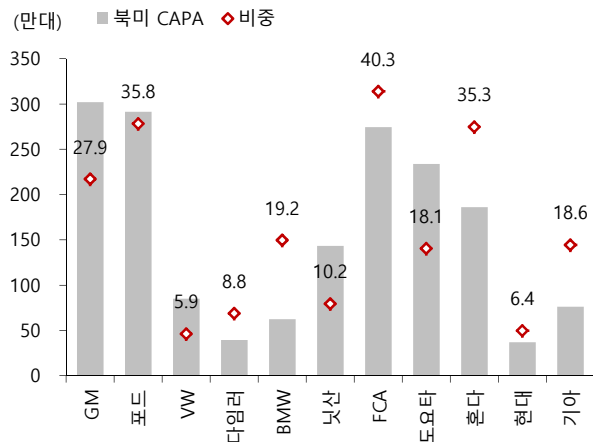
Issue Comment

- ✓ 기존 자동차업체와 신규 진입업체와의 전기차/자율주행 관련 공동개발 점차 확대
- ✓ 협력관계 선정에 있어 생산거점은 중요한 요인. 현대, 기아, GM, 도요타, 혼다 등은 미국, 중국에 생산능력을 보유
- ✓ 해당시장에 생산거점과 고객을 보유한 부품사에도 관심

늘어나는 협력관계, 높아지는 생산거점의 중요성

- 애플과 현대차그룹의 협력가능성 보도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GM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규모 투자 발표
- 기존 자동차업체와 신규 진입업체와의 전기차/자율주행 관련 공동개발이 확대되면서, 협력에 기반한 위탁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장기산업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공급시설을 활용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모두에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판단
- 또한 주요 수요시장의 경우, 타지역에서 수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지생산하는 것이 유리. 물류의 편의성도 있지만, 관세, 자국산 업보호 등의 이슈가 언제든 부각될 수 있기 때문. 2019년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 가능성이 대표적인 예
- 따라서 신규 진입업체가 협력할 완성차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생산거점은 중요한 요인. 그 중에서도 전기차/자율주행 차량 판매와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중국에서의 공급능력에 관심. 현대, 기아를 비롯하여 GM, 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중국에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
-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완성차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고객다변화를 통해 이미 실현 중인 부품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미국과 중국 등에 생산능력과 고객을 보유한 만도, 한온시스템, 에스엘 등의 부품사에 관심

2021년 기준 주요 업체의 북미/중국 공급능력과 전체 생산능력 내 비중



자료: 각사, SK 증권 주. 북미 = 미국+캐나다+멕시코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